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엠바고 : 런던 현지시간 11월 21일(화) 09시 이후 보도 배포 : 2023년 11월 21일(화)

윤석열 대통령, 한-영 비즈니스 포럼 참석

- 한-영 경제협력 성과 평가 및 협력 강화 방향 제시 -
- 한영 FTA 개선,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무탄소에너지 분야 협력 강조 -
- 2,700억 원 규모 계약 및 31건 MOU 체결 -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22(수) 오전에 양국 경제인 200여 명과 함께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양국 기업인을 격려하고, 반도체·바이오·5G·방산·해상풍력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긴밀히 연계된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 경제협력 방향으로서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한 교역·투자 환경 개선,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AI·우주·양자·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협력, ▲원전·수소·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조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 전에 양국 주요 기업인 20여 명과 별도로 사전환담을 갖고,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 지원과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등이 참석하며, 영국 측에서는 런던금융특구 시장, 기업통상부장관을 비롯하여, ARM, Rolls Royce, Standard Chartered, Ocado, Rio Tinto 등 글로벌 기업 CEO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기업인들은 첨단산업·에너지·인프라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금융협력 등에 대해 토의할 계획입니다.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양국 정부와 기업·기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정부 간 MOU는 ❶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공동선언문(韓산업부-英기업통상부), ❷반도체 협력 MOU(韓산업부-英과학혁신기술부), ❸청정에너지 파트너십(韓산업부-英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❹원전협력 MOU(韓산업부-英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❺해상풍력 MOU(韓산업부-英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❻방산 공동수출 MOU(韓방위사업청-英산업무역부)등이 체결됩니다.

기업·기관 간에는 에너지·AI·방산·바이오·금융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총 31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효성중공업·경동나비엔 등은 영국 기업과 약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 생성형 AI 서비스(韓포티투마루-英CAMBRI), ▲ 자율주행 솔루션(韓오토노머스에이투지-英Horiba Mira), ▲ 백신 사업화(韓레모넥스-英Health Innovation East), ▲ 미래차용 렌즈개발(韓아이엘사이언스-英Polymer Optics)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MOU들도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원전 분야는 정부 간에 체결되는 원전 협력 MOU에 이어, 원전 전 주기에 걸쳐 기업·기관 간에도 MOU가 8건 체결됩니다. 상용원전 종주국인 영국과 원전 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영국 신규원전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끝>